

불혹에 걸그룹 데뷔, 라미란 '히트다 히트'



**언니쓰 '셋 업' 음원차트 상위 링크
영화·드라마·예능 등 종합무진**

“잘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고, 망신은 당하지 말자 다짐했어. 추태를 부리거나 틀리면 안되는 거였지.”

웬걸, 망신은커녕 '대박'이다. 지난 1일 세상에 나온 '셋 업'(shut up)은 각종 음원 차트에서 여전한 상위권에 랭크돼 있고, 노래방 기기에도 신속하게 수록됐다. 걸거리를 다니며 여기저기서 '셋 업'이 흘러나오고 라디오 신청곡으로도 쇄도한다.

라미란은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며 활짝 웃었다.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탄생한 걸그룹 '언니쓰'가 기본종은 '사고'를 쳤다. 언니쓰의 '최고령' 멤버로서 마흔한살의 나이에 걸그룹으로 데뷔(?)한 배우 라미란을 최근 인터뷰했다.

◇연기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질긴 동여맨 말총머리에 쇠시한 패션을 선보이며 1일 KBS 2TV '뮤직뱅크' 생방송 무대에 나온 라미란의 모습은 분명 이색적이었다. 10~20대 아이돌 스타들이 매력을 뽐내는 '뮤직뱅크'에 40대 아줌마 라미란이 언니쓰의 일원으로 나와 한 치도 주눅들지 않고 공연을 펼치자 시청자들은 기꺼이 박수를 보냈다.

“뮤지컬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언니쓰 공연은 저한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보시기에 훤히 보이죠. 하하. 이번에도 제가 안무랑 노래 금방 익힌다고 동료들이 에이스라고 추켜세웠는데, 연기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민)효린이의 꿈인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뮤직뱅크' 무대에 섰어요. 아이돌 가수들이 나오고 싶어 졸을 서는 무대인데 추태를 부리거나 틀러서는 안되지요.(웃음)”

그 무대가 끝일 거라 생각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국내는 물론이고, '뮤직뱅크'가 '하필이면' KBS국제방송인 KBS월드TV를 통해 해외 100여개국 6천여만 가구에 도달하는 프로그램이라 사태가 더 커졌다. '뮤직뱅크'는 K팝의 인기를 타고 KBS월드TV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프로그램이다.

“안그래도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잘하면 글로벌하게 히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어요. 해외 시청자들은 우리를 그냥 가수로 알 거잖아요.

(웃음)”

국내에서 명맥이 끊긴 '여성 버라이어티 예능'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창한 취지로 출범한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이번 언니쓰의 성공과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하고 나니 다음 아이템은 뭘로 할지 제작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제 소원은 되게 재미없을 거거든요. 집 짓는 걸 해보려고 했더니 제작진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웃음) 언니쓰의 다음 아이템으로 뭐가 정해질지는 모르겠어요.”

◇'진짜사나이' 이어 '언니들의 슬램덩크'도 히트=라미란은 지난 2014년에는 MBC TV '진짜사나이-여군특집'에서 아줌마의 힘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히트를 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다.

“뒀는 것보다 화생방 훈련이 낫다”고 말하는, 체력이 바닥인 아줌마지만 라미란은 당시에도 애یس로 불리며 “군대에 말뚝 박아라”는 소리를 들었다. 배우로서도 어떤 역이든 해내는 천의 얼굴인 그는 리얼리티 예능에서도 군인과 걸그룹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섬의 1순위로 떠올랐다. 그에 앞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솔직, 걸쭉한 입담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라미란이다.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정말 부담없이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애쓰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진영 오빠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니 우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웃기려고 했으면 시청자가 웃었을가요? (홍)진경이가 언니쓰 연습하는 걸 보고 누구는 일부터 웃기려고 못하는 거냐고도 하던데 아니에요. 진경이 진짜 혼도 많이 나고 속상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우리는 너무 웃기는 거죠. 그게 그대로 화면에 담겼어요.”

◇연기 통해 대리만족=너무 재미있는 일='언니들의 슬램덩크'가 화제지만 라미란은 작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바쁜 배우다.

최근 개봉한 '봉이 김선달'을 비롯해, '덕혜옹주', '특별시민', '보통사람' 등의 영화를 촬영했거나 진행 중이고,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출연을 앞두고 있다.

“다 조연이라 별로 안 바쁘다”며 웃는 라미란은 “연기가 너무 재미있다. 평소 내가 못하는 것을 연기하는 동안 해보지 대리만족을 느낀다. 너무 재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5개월만에 시청률 4.4%로 쓸쓸한 종영...시즌2 기약

SBS TV '동상이몽'은 약 15개월 동안 70쌍이 넘는 부모와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의 눈을 보며 마음을 이어가길 공간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톱 MC 유재석과 김구리가 진행을 맡은 데다 논란이 일 정도로 강렬한 사연들이 줄을 이었음에도 만족스러운 시청률을 얻지는 못했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동상이몽' 최종회 시청률은 4.4%(전국 기준)다. 한때 9%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던 '동상이몽'은 '시즌2'를 기약하며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물러났다.

◇과장? 조작? 끊이지 않은 논란='동상이몽'은 가족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인 만큼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다 보면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해 7월의 '스킨십 부녀' 편이 그랬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영등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입에 뽀뽀하는 아버지와 이를 거부하는 딸의 사연은 방송 직후부터 “아버가 성추행하는 것 아니냐”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이 가족의 큰딸이라고 밝힌 여성이 방송 이틀날 SNS를 통해 작가들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장면이 많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작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제작진과 진행자 유재석-김구리가 각각 사과했지만, 조작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가족 소통의 장 마련에는 의미='동상이몽' 제작진은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18일 마지막 방송에서 이 '공위팔팔' 가족을 비롯해 출연했던 가정들을 찾아 달라진 모습을 공개했다.

딸을 등한시했던 아빠는 일하다가도 딸과 딸의 밥을 챙겨주고, 술에 빠져 살던 아빠는 평일에는 술을 먹지 않았다.

이 또한 '방송용'이라는 시선이 없지 않지만, '동상이몽'이 출연자 가족이나 시청자가 상대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했다는 점만은 의미가 깊다.

관찰카메라를 통해 상대방의 시선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느끼게 한 것. 시즌2는 진정성과 재미를 동시에 잡을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	00 수성한 휴가(재)	0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
12	00 KBS 뉴스 12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재)	00 MBC 영웅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1	00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감성애니 하루		20 수목미니시리즈 (운발 로맨스)(재)	55 TV 블로그 품지락
2	00 한국인의 밤상 50 시사기획 창(재)	00 KBS 뉴스타임 1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20 텔레노스터리(재) 25 드림지니어 스페셜 55 텔레노스터리(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튜닝생활체조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졸라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원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 24 55 신입 리얼 도전기 루키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크 '10' 55 숨터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수목미니시리즈 (W)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어워즈 시상식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미운 우리 새끼
12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다이어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05:30 건강한 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프랑스 와인기행 - 2부 상파뉴)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10 세계의 눈	12:00 EBS 경오 뉴스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1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07:30 주사위 오정 큐비쥬	12:40 지식채널 e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EBS 초대석
08:00 딩동댕 유치원 1~3	13:40 사이틴3 왔다 사춘기
08:45 방귀대장 뽀롱이	13:50 이팝 스페이스 경글
09:00 출동! 슈퍼왕스	14:00 짹과 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미앤마이로봇
09:40 라이프 투크 부모	15:00 모피와 친구들
<독서 습관을 잡아라>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철학자 휴고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0일 (음 6월 17일 癸卯)	
子	48년생 의무적으로 표현했을 크게 얻으리라. 60년생 기대했던 것보다 많지 않은 이득이지만 그래도 잡겠하겠. 72년생 귀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4년생 관점에 따라서 편이할 것이니 폭 넓게 대응하라. 행운의 숫자 : 54, 31	午	42년생 인간힘을 다하게 되는 막바지에 이르렀으니라. 54년생 대용 구멍으로 하늘을 보려는 이치이다. 66년생 기본적인 것에 충실 하는 것이 실속 있다. 78년생 드러나지 않은 정황까지 인식 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6, 12
丑	49년생 물처럼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자. 61년생 기하 괘상대할 만하다. 73년생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거든 기부 찬반의 입장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85년생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7, 62	未	43년생 모순점은 확실치 배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55년생 까다로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67년생 목표를 향해 진일보하라. 79년생 확실한 펼쳐야 할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26, 98
寅	50년생 구관이 명관이고, 노물이 새것보다 낫겠다. 62년생 경기 간에 걸쳐 계속 될 것이니 각오해야겠다. 74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좋다. 86년생 잦은 변화를 하라시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69	申	44년생 길사의 성립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정황이 역력하다. 56년생 현황으로는 미진한 바가 허다하니 다른 방법을 택함이 현명하다. 68년생 치우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하리라. 80년생 본 뜻대로 해도 아무렇지 않다. 행운의 숫자 : 67, 91
卯	51년생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이나 기회와 인연이 기대된다. 63년생 확실히 끊고 맺어야만 후환을 없앨 수 있다. 75년생 벼락 치게 서둘러야만 겨우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87년생 서로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7, 84	酉	45년생 밤심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빈틈없어야 한다. 57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하리라. 69년생 평온한 가운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81년생 외부적인 면까지 신경 써야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82, 35
辰	40년생 보람찬 하루가 될 것이다. 52년생 침된 가치와 함께 하자. 64년생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쬐혀 들어오는 판국이다. 76년생 선택을 잘 못한다면 골레를 뒤집어쓰게 된다. 88년생 손리에 역행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07	戌	46년생 감정을 배제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58년생 산뜻한 새 모습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70년생 바탕이 탄실해야 진행이 차질이 없으리라. 82년생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9, 99
巳	41년생 직접적인 일부만 하자. 53년생 무시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65년생 너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77년생 마음에 들지 않자면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다. 89년생 생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85, 39	亥	47년생 중심을 잡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리라. 59년생 전체와의 조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71년생 유색된 이면에는 검은 부분이 숨겨져 있으니라. 83년생 하찮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4, 77